

‘잔인한 봄’ 딛고 ‘찬란한 가을’ 중심에 서다



다시보는 KIA 2017 시즌
(2) 2번 타자 김주찬

위기

‘호랑이 군단’ 주장, 개막전 홈런 치고 ‘산뜻한 출발’

첫도는 방망이·훈련 중 부상...5월 20일 엔트리 말소

1할대 타율·홈런 2개·13타점·삼진 19개 ‘충체적 난국’

반전

6월 8일 1군 복귀 후 불방망이...‘3할 군단’ 합류

한국시리즈 2차전 극적 결승점으로 우승 꿈 이뤄

KIA 타이거즈의 ‘캡틴’ 김주찬의 올 시즌은 ‘반전’으로 표현할 수 있다.

올 시즌을 앞둔 김주찬은 불음표였다. 김주찬은 지난해 11월 왼쪽 허벅지 부위의 중앙 제거 수술을 받으면서 그의 건강이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그러나 우려와 달리 그는 빠른 회복 속도를 보였고, 이해 12월에는 예상보다는 건강한 모습으로 생애 첫 골든글러브 시상대에 올랐다.

반전의 회복 속도로 야심 차게 올 시즌을 맞은 김주찬은 친구 이범호에 이어 올 시즌 ‘호랑이 군단’의 주장으로 선임됐다. 팀을 대표하는 선수가 됐고, 두 번째 FA까지 앞두고 김주찬의 잔인한 봄은 남달랐다. 하지만 의욕과 다른 성적은 나왔다.

삼성 라이온즈와의 개막전에서부터 홈런을 터뜨렸지만 이후 첫도는 방망이에 타율은 1할대로 추락했다.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던 김주찬의 잔인한 봄은 부상으로부터 이어졌다. 부진 만회를 위해 훈련에 몰두했던 그는 손목 통증으로 5월 20일 엔트리에서 말소됐다.

말소 전까지 기록된 성적은 141타수 24안타, 타율 0.170으로 2개의 홈런으로 13타점을 올리는 데 그쳤다. 또 볼넷은 7개를 얻어냈지만 19타석에서 삼진으로 물러나는 등 총체적인 난국이었다. ‘캡틴’이라는 역할까지 맡은 시즌이었기에 김주찬의 부진이 아쉬웠던 봄이었다.

하지만 위기 속 또 다른 반전소가 펼쳐졌다.

6월 8일 1군으로 복귀한 김주찬이 부족했던 봄날을 만회하려는 듯 바쁘게 움직였다. 6월 한 달 17경기서 27개의 안타를 쓸어 담으면서 0.435의 타율을 찍은 그는 전반기 마지막 날 시즌 타율을 0.235까지 끌어올렸다.

그는 시즌 반환점을 돌면서 “너무 안 맞아서 미안했다. 하지만 팀원들이 편하게 해주면서 많은 도움을 줬다. 주장으로 부담감은 못 느낀다. 내가 못해서 부담감이 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이다. 내가 잘하면 될 것이다”며 “아수들이 잘해줬는데 우리 불펜도 잘하고 있다. 중요한 때 역할을 해 줄 것이다”며 팀과 동료를 이야기했다.

실패를 경험한 어린 불펜투수진을 다독이며 맛있는 거 사 먹으라고 용돈을 쥐여 주고, 한국시리즈 준비를 하며 흐트러진 후배들에게는 집중하라며 큰소리를 치기도 하는 등 김주찬은 팀을 대표하는 타자와 주장으로 V11과 자신의 생애 첫 우승을 위해 전진했다.

어느새 1할 타자는 3할 타자가 됐다. 김주찬은 타선의 전체적인 침체 속에서도 후반기 0.360의 타율을 찍으며 7개의 홈런도 기록했다. 초반 부진을 딛고 그는 반전의 시즌을 보내면 당당히 ‘3할 군단’의 일원이 됐다.

한국시리즈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에도 김주찬이 있었다. 2차전 양현종의 짜릿한 1-0 완봉승의 또 다른 주인공이 김주찬이다.

0-0으로 맞선 8회말 김주찬은 선두타자로 나와 자신의 한국시리즈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그리고 베나디아의 희생번트와 최형우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3 루에서 김주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0-0으로 맞선 8회말 김주찬은 선두타자로 나와 자신의 한국시리즈 첫 안타를 2루타로 장식했다. 그리고 베나디아의 희생번트와 최형우의 볼넷으로 만들어진 1사 1-3 루에서 김주찬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됐다.

나지완의 타구가 3루수 앞으로 향했고, 스타트를 끊었던 김주찬이 협살에 걸렸다. 김주찬이 태그를 피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움직이는 사이 최형우가 2루에 이어 3루까지 뛰어들었다. 그리고 두산 양의지가 3루로 송구를 한 틈을 노려 김주찬이 홈에 파고들면서 팽팽하던 균형의 추를 기울였다. 2017시즌 한국시리즈의 흐름을 바꾼 결정적인 장면, 극적인 승리였다.

카메라 앞에서 묵묵한 표정의 김주찬도 한국시리즈 우승 순간에는 다른 모습이었다. 눈물을 글썽이기도 했던 김주찬은 밝은 표정으로 우승 세러모니를 하며 주장 자격으로 행가래를 받기도 했다.

화제의 FA로 ‘우승’을 하기 위해 KIA로 왔던 그는 ‘캡틴’으로 소망하던 우승의 꿈을 이뤘다. 그리고 다시 FA가 된 김주찬의 따뜻한 겨울이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김주찬 월별 성적

구분	경기수	타수	타율	득점	안타	2루타	3루타	홈런	타점	도루	볼넷	사구	삼진
3~4월	24	86	0.186	13	16	6	0	1	9	2	4	1	9
5월	15	55	0.145	4	8	2	0	1	4	0	3	0	10
6월	17	62	0.435	15	27	7	1	1	15	0	5	1	10
7월	21	86	0.384	20	33	8	0	5	19	2	7	0	13
8월	20	62	0.403	11	25	10	1	2	9	4	5	1	7
9월이상	25	89	0.303	15	27	6	0	2	14	1	7	1	10



KIA 우승 기념 감사패 율창현 광주시장(가운데)이 14일 오전 광주시청에서 KIA 타이거즈 김기태 감독에게 우승기념 감사패를 수여한 후 양현종 선수에게서 대형 사인볼을 선물 받고 던져보고 있다.

/연합뉴스

KIA 양현종 ‘일구상’ 최고투수상 수상

김기태 감독 지도자상

KIA 양현종이 ‘2017 휘슬러코리아 일구상’ 최고투수상을 받았다.

한국 프로야구 OB회원 사단법인 일구회(회장 운동관)가 14일 ‘2017 휘슬러코리아 일구상’ 11개 부문의 수상자를 발표했다.

양현종은 22년 만의 토종선발 20승을 기록하면서 팀 우승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을 인정받아 최고투수상 주인공이 됐다. 양현종은 2014년에도 최고 투수상을 수상했다.

‘형님 리더십’으로 팀을 우승으로 이끈 KIA 김기태 감독은 지도자상을 받는다. 또 ‘동행’으로 팀을 정상으로 이끈 KIA 운영팀이 프런트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일구대상은 허구연 KBO 야구발전위원회 위원장에게 돌아간다. 허구연 위원장은 오랜 방송 해설을 해오며 야구 인프라 개선을 위해 심혈을 기울이는 등 야구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최고 타자상은 2년 연속 홈런왕으로

국내 선수의 자존심을 세운 SK 최정이가 차지했다. 144경기 전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4, 179안타 2홈런 47타점 111득점의 맹활약을 한 ‘바람의 손자’ 이정후가 신인상을, 2006년 4차 라운드에 입단해 10년 이상 무명생활과 부상을 이겨낸 두산 김강철이 의지노력상을 받았다.

심판상은 20년 경력의 이영재 KBO 심판위원이, 특별공로상에는 아마야구의 어린 선수들의 부상 예방을 위해 헌신한 선수촌병원 한경진 재활원장(KBO 육성위원)이 수상한다.

올해 신설된 고교야구 투수, 타자 MVP에는 각각 배병고 광빈과 서용고 강백호가 선정됐다. 두 선수 모두 모교의 전국대회 우승에 기여한 공과 태극마크를 달고 활약한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2017 휘슬러코리아 일구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2일 오전 11시부터 서울 리베라호텔 3층 베르사이유 홀에서 진행된다. IB 스포츠 채널을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52홈런’ 양키스 에런 저지 AL 신인왕 등극

올해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를 뒤 흔든 괴물 타자 에런 저지(뉴욕 양키스·사진)와 코디 벨린저(로스앤젤레스 다저스)가 나란히 만장일치로 신인왕에 등극했다.

저지는 14일 공개된 미국야구기자협회(BBWAA) 투표에서 1위 표 30표를 독식해 총점 150점으로 안드루 베네티(보스턴 레드삭스·75점)를 크게 따돌리고 아메리칸리그 신인왕에 올랐다.

그는 올해 정규리그에서 역대 메이저리그 신인 최다인 홈런 52개를 쏟아 올리고 리그 홈런 1위를 차지했다. 또 아메리칸리그 타점 2위(114개), 출루율 2위(0.422) 등 눈부신 성적을 남겼다.

저지는 만장일치로 신인왕을 수상한 아메리칸리그 역대 10번째 신인이다. 저지는 올스타전 홈런 터전에서 우승했고, 시즌 후에는 포지션별 최고 타자에게 주는 외야수 부문 실버슬러거도 받았다. 아울러 선수들이 뽑은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아메리칸리그 최고 신인으로 인정받았다.

벨린저 역시 내셔널리그 신인왕 투표에서 1위 표 30표를 쓸쓸히 2위 폴 데



용(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56점)을 압도했다. 벨린저는 리그 홈런 2위(39개), 타점 공동 13위(97개)로 시즌을 마쳤다. 역대 내셔널리그

신인 최다 홈런 기록을 세운 그는 ‘플레이어스 초이스 어워드’에서 내셔널리그 신인상을 받았다.

내셔널리그에선 크리스 브라이언트(시카고 컵스), 코리 시거(다저스)에 이어 벨린저까지 3년 연속 만장일치 신인왕이 탄생했다.

양대리그에서 동시에 만장일치 신인왕이 나온 건 1987년 마크 맥과이어(오클랜드 애슬레틱스)·베니토 산티아고(샌디에이고 파드리스), 1993년 팀 새먼(로스앤젤레스 에인절스)·마이크 피아자(다저스), 1997년 노마 가르시아파라(보스턴 레드삭스)·스카 롤렌(필라델피아 필리스)에 이어 이번이 4번째다.

/연합뉴스

“이기러 왔다” 야구대표팀 도쿄 입성

애프로야구챔피언십 내일 오후 7시 일본과 개막전...17일 대만전

한국 야구의 미래를 책임질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야구대표팀이 대회 가 열릴 일본 도쿄에 14일 입성했다.

선동열(54)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이날 오전 서울 김포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설레는 마음에 반쯤 열린 일부 선수는 도쿄로 향하는 2시간 동안 잠시 눈을 붙이며 피로 해소에 전념했다.

반면, 젊은 선수를 이끌고 나선 코치진은 비행기에서도 분주했다.

15일 도쿄돔에서 2시간 30분 동안 진행

할 훈련 스케줄을 확인하고, 전력분석 영상 자료를 살펴보는 데 여념이 없었다.

오전 11시경 도쿄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대표팀은 숙소가 있는 일본 도쿄돔으로 곧바로 이동했다. 이번 대표팀의 목표는 “떨지 않고 하던 대로만” 경기하는 것이다.

3월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출전했던 김하성(22·넥센 히어로즈)을 제외하면 성인 대표팀 경험이 전무하다.

그래서 선 감독은 13일 공식 훈련이 끝난 뒤 선수들에게 평소대로만 경기하자는

당부를 전했다. 대표팀 주장 구자욱(24)은 도쿄에 도착한 뒤 “이기러 왔다. 결과를 내고 돌아가겠다”는 각오를 전했다.

한국과 일본, 대만이 올해 창설한 APBC 대회는 24세·프로 3년 차 이하 선수가 기량을 겨루는 게 특징이다.

한국은 16일 오후 7시 도쿄돔에서 일본과 대회 개막전을 치르고, 17일 오후 7시에는 같은 장소에서 대만과 겨룬다. 3개국 중 예선 2위 안에 들면 19일 오후 6시 결승전을 벌인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김포공항을 통해 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APBC) 대표팀이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야구대표팀이 출국에 앞서 단체 촬영을 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